

순창 문화상품, 대형마트 입점 눈 앞

우슴자기·발효커피·토마토고추장 등 홍보효과·판매량 확대 기대

순창 농·특산물이 최근 판교 교보 문구내 홍보점 개설로 도시민들에게 눈 도장을 찍은 데 이어 대형마트 입점도 예상되어 있어, 판매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롯데마트 입점은 본사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입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전라도 지역인 광주점과 전주점을 필두로 판매량이 확대되면 전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판매액 확대 뿐 아니라 높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굳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순창군이 개발한 발효커피와 토마토고추장, 순창 우슴자기 등 문화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여 입소문을 탄다면 순창 고추장이라는 브랜드 외에도 새로운 브랜드 구축에도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이번 롯데마트 입점 외에도 군은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현재 지역 농·특산물 일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판교 교보문고 홍보점 개설을 시작으로 지난날 광화문 지하



최근 판교 교보문구내 홍보점에 개설된 순창 농·특산물.

철 역사에서 교보문고까지 이어진 통행로에 팝업 스토어를 추가로 개설해 오는 12월까지 운영에 나서, 도시민들에게 순창 농·특산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개설한 광화문 팝업스토어가 위치한 광화문 지하도는 지하철 출구부터 교보문구내 지하 출입구가 이어져 있어, 1일 유동인구가 50만명에 이르다 보니 지난 7월 교보문고

홍보점보다 더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교보문고 광화문점내도 홍보점을 개설해 농·특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입점이 성사되면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량 확대 뿐 아니라 제품 홍보면에서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풀가동

군 보건의료원, 24시간 응급실 운영·약국 지정 운영

임실군이 추석 연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진료 이용 편의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임실군보건의료원은 24시간 응

급실을 운영한다.

또한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9개소, 병·의원 4개소는 군민들의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휴일지킴이약국 6개소가 운영되며, 관내 일부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인 종합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6가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임실군보건의료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연휴기간 문의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상황반(640-3110)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남원시 안전관리 협업 강화

남원소방서와 남원시가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협업을 강화하며, 남원시에서는 소방서 앞 출동로 개선 28억원, 구급차와 중측 2억5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에 1억

600만원 등 총 30억여원을 투입한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통계에 전체 6천여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1635건으로 27.3%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주택화재 사망률이 67.9%를 넘고 있으

나, 아직도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남원소방서와 남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2600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구급차와 없는 수직면과 대강면에 구급차와 중측과 소방서 앞 출동로 개선에 나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옷칠공예관이 옷칠수저 만들기, 자개 액세서리 만들기, 옷칠 단체 체험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남원 옷칠체험관, 특별강좌 인기

옷칠수저 만들기·자개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다양

남원시 옷칠공예관이 다양한 옷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커플,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체험에서는 삼베느낌 옷칠쟁반 만들기, 옷칠수저 만들기, 자개 액세서리 만들기, 옷칠 단체 체험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체험생들은 목기제품에 직접 옷칠, 자개를 입히는 작업을 통해 옷칠공예를 접할 뿐만 아니라, 전시관의 수준높은 옷칠목공예품을 감상하며 예술적 안목을 쌓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특히, 전북 인재개발원에서 옷칠목공예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 교육생들이 체험에 참여해 만족도 높은 교육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 접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31-5725)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용 관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옷칠 목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옷칠목공예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치 오감발달' 영유아 학부모 호응

순창 해피니스PCN센터, 지난달부터 교육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PCN센터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오토치 오감 발달 놀이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아이와 즐거운 경험을 갖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5~9개월 유아와 10~16개월 유아 2개반을 구성해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반별로 각각 5개 주제로 운영되며 오는 16일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부모는 "그동안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참여를 위해서는 인근 도시 문화센터를 찾아야 했다"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피니스PCN센터는 오는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임신·출산 건강요가교실을 운영하며, 요가교실을 통해 태아와의 교감을 형성하고, 명상을 통한 호흡과 몸의 이완으로 건강한 출산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4일에는 임신부와 가임기 여성들을 위한 '임산부의 날'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순창,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미생물 생산 업체 선정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최고품질 미생물 생산을 위해 유용 미생물 배양에 대한 공개시험배양을 실시하여 우수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미생물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결과 12개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시험배양은 23회에 걸쳐 실시된다.

선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총 준수 2회 검사와, 가격, 특허, 종균량, 시험배양시간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10월초에 업체를 선정하며 남부너시는 최고품질의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월 12톤 내외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초균 등 7종 미생물을 축산 및, 원예 농가들에게 매 주 공급하고 있다.

문수옥 현장지원과장은 "유용미생물 공급은 농업환경 기반의 변화나 친환경농업, 악취저감 등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가족교실 '헤어림' 운영

순창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어르신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8월 30일부터 주 1회씩 8주간에 걸쳐 치매 가족을 돕는 가족교실 '헤어림'을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치매알기과 치매환자 돌보는 지혜,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이다. 치매알기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치매진단, 치매초기증상을 통한 치료와 관리 등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치매환자 돌보는 지혜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마음 이해하기과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의사 소통 방법 학습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준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공예와 운동, 영화상영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가족교실 헤어림 운영으로 치매환자 돌봄과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